

# 경제를 알아야 성공한다

순서	내용
1	한국의 양계산업 어디까지 왔나?
2	어떤사람이 진짜 양계경영자인가?
3	양계 CEO가 알고 있어야할 몇가지 경제지식 생산비와 경영비, 기회비용, 수확체감 현상, 규모의 경제, 이윤과 유통마진, 물가지수
4	경제를 알아야 성공한다(연재)



**김 정 주**

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미** 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어 어느새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와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양계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환율급등에 의한 사료 및 원자재 가격인상,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위축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계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별 양계농가의 경영이 건전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별 양계농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양계경영자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양계산업은 이미 전업화 된지 오래이므로 대부분의 양계경영자들은 기술에 관한한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다. 그러나 경영·경제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개별 양계농가의 경영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계농가의 경영·경제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경제가 불안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양계산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고 양계경영자로서의 자세와 그들이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 경제 상식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한다.

### 1. 한국의 양계산업 어디까지 왔나?

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 2003년 12월과 2006년 12월, 2008년 4월에 발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속칭 조류독감)로 절대 절명의 위기를 세 번씩이나 맞았고, 천신만고 끝에 이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한듯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예외 없이 수입 개방되면서 관세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협상이 종료되고 국회 비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확실한 보완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불안



표1. 2007년 축산업 생산액

(단위 : 십억원)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축산업	9,051.9	8,869.6	10,839.9	11,767.2	11,676.3	11,277.3
가. 가축	6,432.0	6,363.8	8,106.0	8,814.9	9,014.6	8,508.6
한육우	2,136.3	2,463.3	2,893.7	3,147.9	-	-
한우	-	-	-	-	2,835.6	3,115.6
육우	-	-	-	-	437.9	332.2
젖소	72.0	37.9	34.2	31.8	36.9	34.0
돼지	2,918.4	2,681.2	3,666.8	3,758.6	3,609.3	3,319.7
닭	729.4	641.2	947.6	1,113.2	1,330.0	1,027.5
기타 가축	575.9	540.4	563.7	763.5	764.8	779.7
나. 축산물	2,620.0	2,505.7	2,733.9	2,952.3	2,661.8	2,768.7
우유	1,572.9	1,478.9	1,515.7	1,551.3	1,521.3	1,551.2
계란	731.8	695.0	988.3	1,085.3	867.4	853.7
기타축산물	315.2	331.9	230	315.7	273.1	363.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값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닭(육계)이 1,027.5십억원으로 5위, 계란이 853.7십억원으로 7위를 차지했는데 2000년 이래 계속 닭(육계), 계란할 것 없이 5위-7위를 차지했다. 만일 한·미, 한·EU, 한·중 등 여러 FTA가 타결되어 이중 10%씩만 생산액이 감소되어도 양계산물 생산액 감소는 188십억원 정도가 될 것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 2. 어떤 사람이 진짜 양계 경영자인가?

어느 조직이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장이니, 전무니, 실장이니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CEO, 즉 최고경영자이다. 통상적으로 경영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우수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각종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공학적인 재능, 즉 엔지니어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라면 적어도 한 두 사람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려야 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지도력과 술선수범을 보일 수 있는 심리적인 기능까지도 요구되

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은 문제의 핵심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경영기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양계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양계경영자는 자기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육계, 계란)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무리 유능하다고 자처한 양계인이라도 닭고기나 계란의 특징을 모르거나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양계 농장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양계경영자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만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해의 폭이 좁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정치판에도 ‘소통의 정치’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는 화두이기도 하다.

셋째로 양계경영자는 닭고기나 계란의 생산량, 소비량, 가격, 재고품 등의 예측에 능숙해야 하고 회계처리도 밝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기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 예측기법까지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넷째로 양계경영자는 항상 농장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보면 장기적인 이익의 큰 몫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양계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에 통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경영자는 마치 의사가 의술을 베풀 듯, 법관이 법을 집행하듯 적절한 기술 기능과 경제

적 이론 그리고 판단력을 조화시켜 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양계는 다른 일반기업 경영에 비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각종 질병, 급속한 기술진보, 조변석개하는 정책, 변질되기 쉬운 생산물 등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양계경영자는 앞에 말한 네 가지 요소이외에도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 기상, 기술변화와 같은 외부 영향에 따라 일어나는 시장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